

PVC and PVC Film Market Trends in Russia

러시아 PVC 및 PVC 필름 시장동향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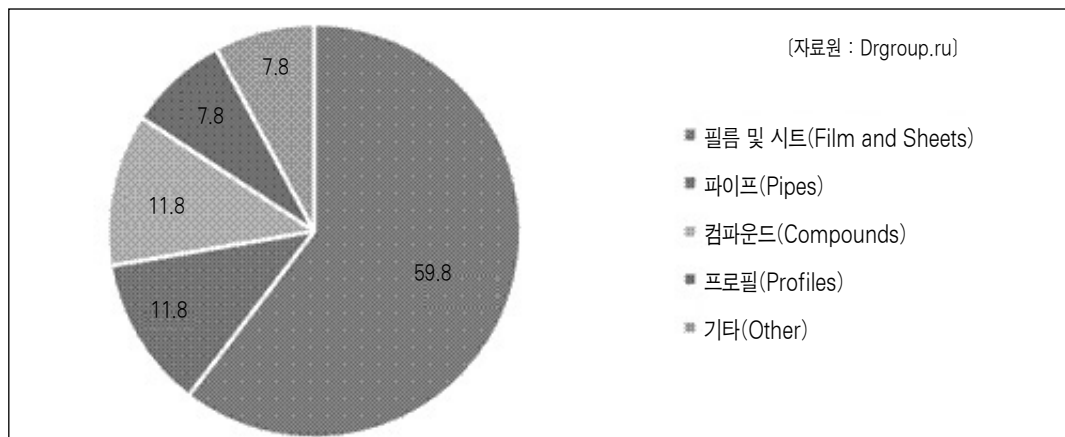
I. 서론

최근 러시아로 다량의 PVC제품이 수입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PVC제품 및 원료로서의 PVC를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의 PVC 상위 공급국가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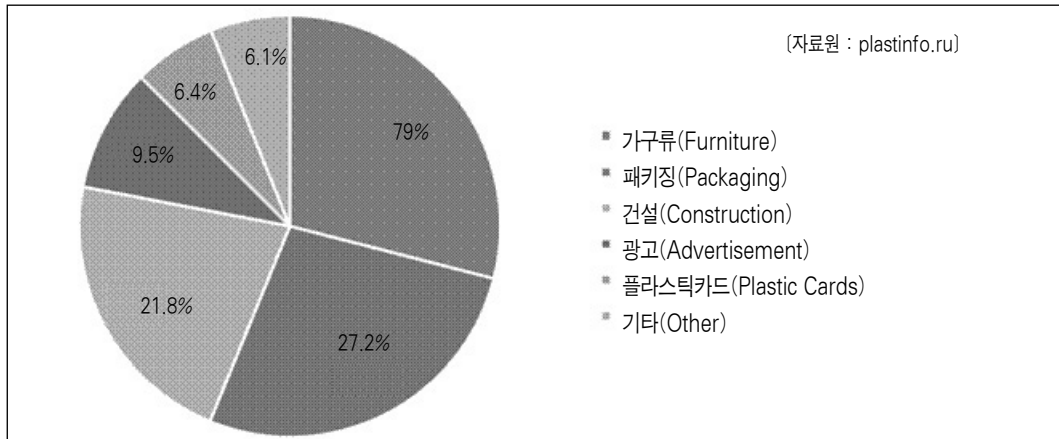
마케팅조사기관 DISCOVERY에 따르면, 가구생산용 러시아 PVC시장의 대다수는 수입을 통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2012~2014년 사이 가구생산용 PVC필름시장의 총생산량은 4만 2,575톤으로, 2013년 4%, 2014년 1%의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015년 시장 총량은 35%가량 하락한 2만 7,407톤이었고, 2016년에는 전년대비 18% 감소한 2만 2,352톤이었다.

러시아 PVC전문가는 향후 몇 년간 PVC필름 및 패널시장의 소비성장세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

[그림 1] PVC시장 중 잠재적 소비성장이 예측되는 분야



[그림 2] 2016년 PVC필름시장 분야



[표 1] PVC 수입현황(HS Code 392043 기준, 가소제 함유량 6% 미만)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16/'15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세계	133.4	108.5	105.4	100.00	100.00	100.00	-2.82
1	중국	66.5	50.9	54.1	49.81	46.98	51.22	5.96
2	독일	21.4	16.4	14.4	16.06	15.13	13.61	-12.57
3	한국	11.5	10.9	10.8	8.61	10.02	10.25	-0.60
4	이탈리아	1.1	5.5	5.6	0.82	5.07	5.31	1.69
5	프랑스	4.5	3.4	3.8	3.35	3.13	3.60	11.88
6	벨라루스	0.1	1.3	3.2	0.09	1.19	3.04	147.64
7	태국	4.2	4.3	3.2	3.15	3.94	3.04	-25.16
8	우크라이나	4.6	4.8	2.9	3.42	4.40	2.76	-38.91
9	대만	5.3	2.1	1.8	3.94	1.86	1.70	-11.43
10	폴란드	1.8	0.8	1.1	1.35	0.75	0.97	2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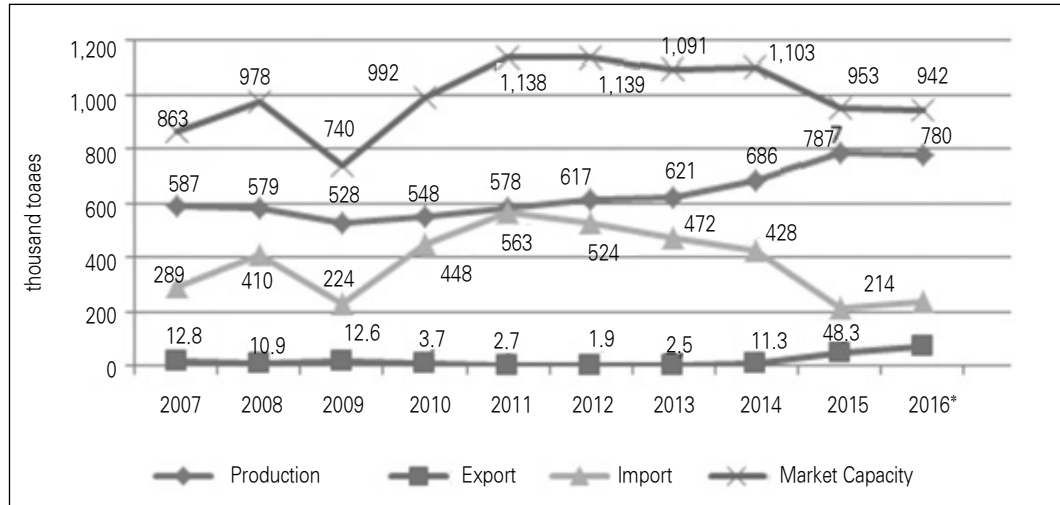
[자료원 : 러시아 수입통계청]

을 내놓았다.

DPO Plastic사 영업담당자에 따르면 현 러시아 PVC시장은 러시아 자국업체(DPO Plastic사 및 Klöckner Penplast Rus사)와 외국업체의 삼파전 양상이라고 한다. Klöckner Penplast Rus사 프로젝트 담당자는 PVC필름을 사용하는 플라스틱 카드제품이 매년 15%가량 성장추세를 보인 것으로 발표했다. 2015년 말 제품 총량은 3,000톤(Klöckner사 26%)이었으며, 의료포장 분야에서의 PVC필름 소비량 또한 매해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 시기에 루블화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PVC필름 수입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림 3) 2007~2016년간 러시아 PVC시장

(단위 : 천 톤)



(자료원 : <http://www.creonenergy.ru>)

II. 시장정책

2016년 PVC시장 총 수용량은 94만 2,000톤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치이다. 그 중 11만 2,000톤이 PVC-E(유화중합) 제품, 79만 톤이 PVC-S제품이며, 4만 톤이 재고품이다. 러시아 국내 생산품으로는 PVC-S와 PVC-E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지만 러시아 생산업체는 PVC-S생산에 주력해 생산과 소비 간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PVC-E제품에 대한 수요는 수입을 통해 충족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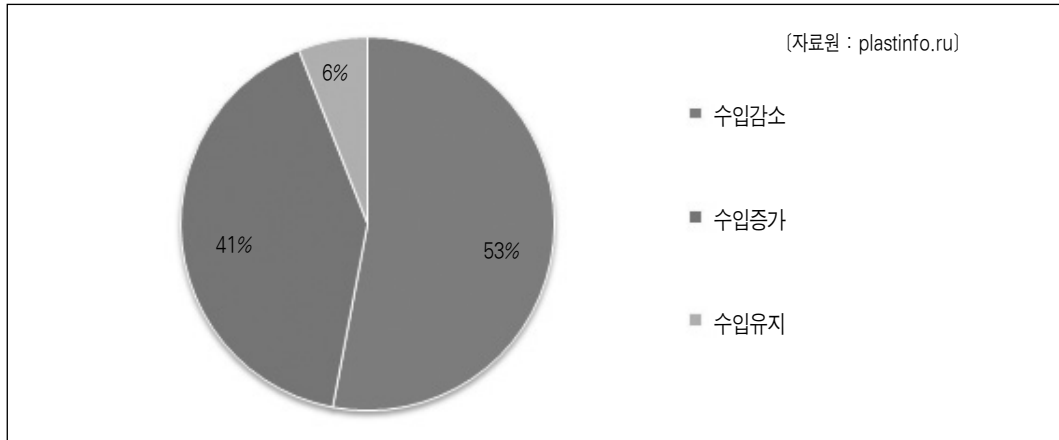
2016년 소프트 케이블(soft cable)제품은 근소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기타 다른 PVC공정제품은 하락세를 보였다.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인 분야는 비 소프트 케이블(non-soft cable)(-52%)로, 생산 감소의 주 원인은 구매력 감소, 루블 하락, 높은 인플레이션율 등이다.

III. 수입시장의 새로운 트렌드

2016년 러시아 PVC시장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성장한 모순적인 경향을 보였다. 현재 러시아 내에는 4개의 PVC업체가 선두로 꼽힌다.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한 국내 판매이익 감소로 러시아 생산업체는 유럽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10~15%가량 이익을 증진시켰다. 그 결과 2015~2016년간 수출은 25%가량 성장했다.

이와 더불어 시장 관계자들은 러시아 PVC시장 내 주요 생산업체 중 하나인 Sayanskkhimplast사의 생산중단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2016년 3월에 중단, 당해 9월 다시 재개됨). 이 여파

[그림 4] PVC-C 수입 예측



[표 2] PVC 수입 현황(HS Code 3904, 혼합되지 않은 순수 PVC)

순위	국가명	수입액(백만 달러)			점유율(%)			증감률(%) '16/'15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	세계	612.3	302.9	288.4	100.00	100.00	100.00	-4.80
1	독일	171.1	123.5	117.3	27.93	40.75	40.69	-4.96
2	중국	175.9	58.6	83.1	28.72	19.34	28.82	41.85
3	미국	77.5	19.8	18.8	12.65	6.53	6.51	-4.96
4	스웨덴	40.6	31.8	17.8	6.63	10.48	6.18	-43.90
5	우크라이나	26.4	10.2	12.3	4.31	3.35	4.25	20.74
6	한국	13.4	3.9	8.3	2.18	1.28	2.89	115.22
7	카자흐스탄	23.3	9.5	5.3	3.80	3.15	1.85	-44.22
8	이탈리아	14.7	13.5	5.3	2.40	4.44	1.83	-60.85
9	프랑스	10.7	6.3	3.9	1.75	2.07	1.39	-36.35
10	슬로바키아	1.3	3.4	3.7	0.22	1.14	1.28	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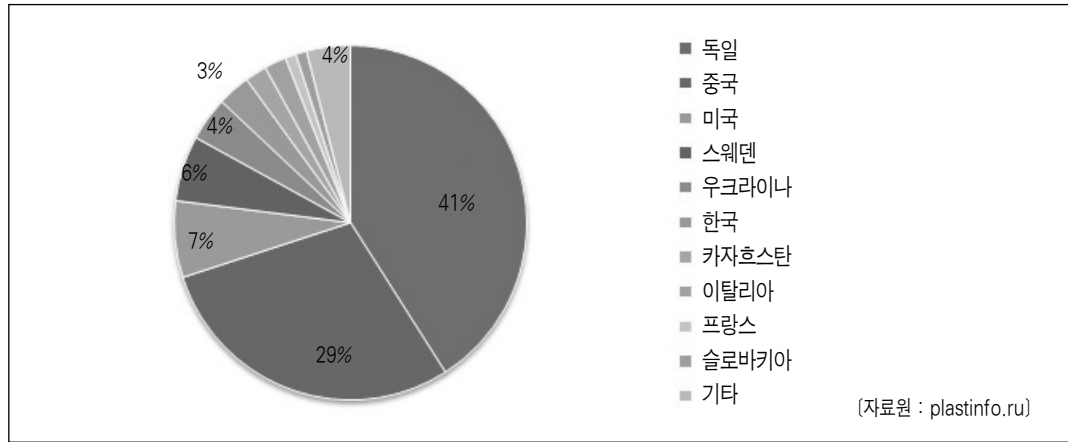
(자료원 : 러시아 수입통계청)

로 자국 생산업체로부터 충분한 PVC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러시아 업체들이 수입으로 방향을 돌렸다. 러시아 업체들은 부족한 원재료를 중국 및 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PVC 제품은 러시아 총 수입의 80%이상을 점유해 시장 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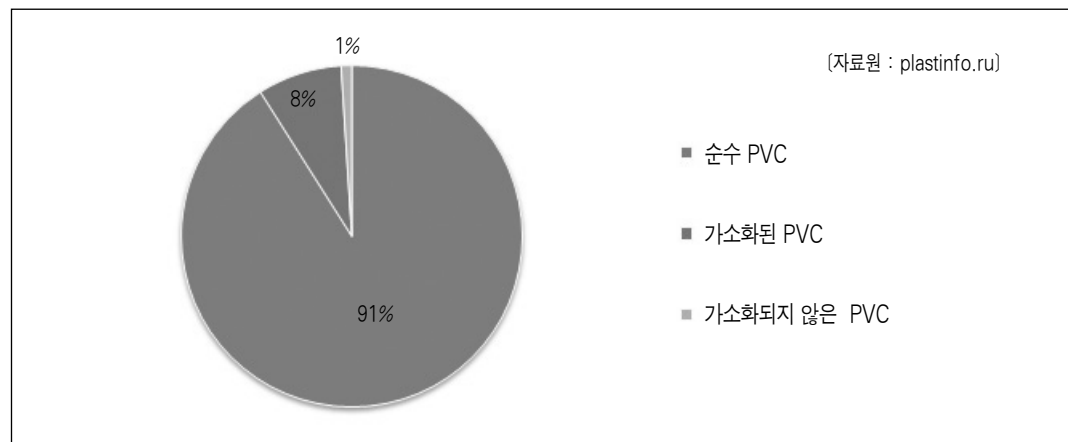
INVENTRA사의 Ms. Lola Ogresel은 PVC-S의 수입이 2016년 내 9개월간 80% 증가했으며 Sayanskkhimplast사의 재가동이 이러한 추세를 뒤집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주요 수출국이 됐다. PVC-E의 수입은 14%가량 감소했는데, 가장 큰 폴리머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Vinnolit사와 Vestolit사를 기반으로 독일이 주요 수출국이 됐다. 2년 전까지 PVC 수출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Rusvinyl사의 선전으로 현재 상황은 크게 변했다. 대부분 공급국가는 CIS권 국가(주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및 인도이다.

2016년 말 연례회의인 '2016 PVC 시장 결과'에서 INVENTRA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림 5) 순수 PVC 점유율



(그림 6) 2016년 PVC 수입현황



회의 참석자들은 2017년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참석자의 과반이 넘는 53%가 자국 생산이 수준 높은 공정을 통해 수입량을 줄일 것이라 답변했고, 수요 또한 국내 생산량을 넘을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41%의 답변자들은 경쟁력 있는 저렴한 중국제품에 기인한 수입 증가와 국내 생산 감소를 전망했다. 답변자의 6% 또한 수입제품의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꼽았지만, 수입은 유지될 것이라 답했다.

PVC공급업체의 약 41%가량을 독일업체가 차지하고 뒤이어 중국(29%)이며, 미국(7%), 스웨덴(6%)이 점유하고 있다. 그 중 스웨덴이 단 4곳의 러시아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6%를 점유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가장 저렴한 원료는 중국이 공급하는 것으로, 이탈리아제품은 중국제품에 비해 2.5배가량 단가가 높다.

2016년 평균 가격을 살펴보면, 중국산 PVC는 753.21달러(톤 당), 이탈리아 산 PVC는 1,812.19달러(톤 당)이다.

[표 3] 상위 PVC 수입업체

수입업체	홈페이지	수입량(톤)	단가(달러)	평균가격(톤당 달러)	협력업체
A 0 'ARKETT'	http://www.tarkett.ru/	25,836	28,265,595	1,094.04	10
0 A 0 'MANP'	http://mosagr.ru/	7,632	4,762,311	623.96	5
0 0 0 'Juteks ru'	http://juteks.ru/	6,368	8,863,162	1,391.88	5
0 0 0 'LION'	n/a	6,359	4,646,803	730.76	3
0 0 0 'KOF-PALITRA'	http://www.б а ш и л а с т . р ф /	4,700	6,842,950	1,455.95	4
0 0 0 'BASHPLAST'	http://www.kof-palitra.ru/	4,268	2,944,690	689.95	2
0 0 0 'TRANSKHIM'	http://www.transchem.ru/	3,835	2,646,592	690.12	3
0 0 0 'PIONER TRADE'	http://www.trade-pioneer.ru/	3,132	2,351,320	750.74	2
0 0 0 'ERISMANN'	http://www.erismann.ru/	3,010	4,760,675	1,581.38	33
0 0 0 'TD FAINBER'	http://www.fineber.ru/	1,405	936,768	666.67	1
0 0 0 'MAXITRADE'	http://п о м -57 . р ф /	1,353	798,270	590	1
0 0 0 'Polikhimkomplekt-M'	n/a	1,280	1,923,576	1,503.20	4
0 0 0 'A.C. i Palitra'	http://www.as-palitra.ru/	1,200	1,728,140	1,440.24	1
0 0 0 'REHAU PRODUKTION'	https://www.rehau.com/ru-ru	1,095	1,076,739	983.73	3
Z A 0 'TASKOM'	http://www.tackom.ru/	1,037	643,126	620	1
0 A 0 'VKHZ'	http://www.vhz.su/	990	796,099	804.14	1
0 0 0 'Energotekhlplast'	http://plast.nzif.ru/	976	1,095,661	1,122.50	1
0 0 0 'VED LOGISTIK'	n/a	952	1,052,968	1,106.04	2
0 0 0 'PENOPLEKS SPB'	http://www.penoplex.ru/	950	934,665	984.3	4
Z A 0 'PROFAIN RUS'	http://www.profine-group.ru	900	1,690,367	1,877.84	9
기타	-	26,298	37,116,446	1,411.39	397

수입량의 90% 이상은 다른 성분과 혼합되지 않은 순수 PVC로, 평균가격은 다른 제품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다. 가장 단가가 높은 PVC제품은 불소 중합체이다.

IV. 시사점

루블화 평가절하로 인한 내수시장 내 판매 이익 감소로 러시아 PVC 생산업체는 유럽으로 수출량을 늘려 10~15%가량 이익을 증진시켰다. 그 결과 2015~2016년간 러시아 제품의 수출은 25%가량 성장했다. 이처럼 뚜렷한 수출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약 41%의 시장 관계자들은 저렴한 중국제품의 진입으로 인한 러시아 업체들의 생산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민정 KOTRA 러시아 노보시킴스크무역관은 러시아 PVC시장에 대해 유의할 점으로 수입업체들의 특징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시장 내 1위 수입업체인 TARKETT사는 다른 상위 5개 수입업체보다도 3~5배가량 수입량이 많으며, ERISMANN사는 공급업체가 다양하고, Polikhimkomplekt-M사는 가장 단가가 높은 PVC제품에 특화돼 있다”며 “러시아 시장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은 수입업체의 특성과 맞는 영업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